

종합·해설

범여권 대선 주자들 광주서 조문 정치

호남 민심잡기 물밑경쟁 시동?

이해찬·손학규·정동영·한명숙씨

윤한봉씨 빈소 문상... 지역인사 면담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8일 일제히 광주를 찾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전 총리가 이날 '5·18 마지막 수배자'로 27일 별세한 윤한봉 민중미래연구소장 빈소가 마련된 광주 조산대병원을 방문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다음주 초 다시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윤 소장은 광주지역의 대표적 재야 인사로 정치권에서는 범여권 주자들의 단속한 '조문' 차원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 지사의 이날 광주행은 단 하루의 일정이지만 범여권 합류 이후 첫 호남지역 방문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 박광태 광주지사를 비롯해 지역 유력인사와 재야 인물들을 찾아 인사한 뒤 오후 7시께 윤 소장의 빈소를 찾았다.

정 전 의장의 경우 이번 광주 방문과 함께 지난 4월 이후 중단했던 지역

투어를 두 달 만에 재개했다. 그는 이날 낮 광주·전남지역 기자들을 만나 "통합민주당 두 대표의 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민주당이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 초 대선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째 호남투어를 하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목포·신안·영암지역 경제인 조찬간담회, 무안 월선리 예술인촌 방문,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초청 당원 오찬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3시30분께 윤 소장의 광주 빈소를 찾아 "실천력이 강한 분이었는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전 총리는 27일 전북 방문 도중 윤 소장의 빈소를 찾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명숙(왼쪽) 전 국무총리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광주 조산대병원에서 마련된 윤 윤한봉 민중미래연구소장의 빈소를 각각 찾아 조문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 주자들, '이해찬 견제' 기류 확산

김혁규·신기남·김두관 일제히 비판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친노진영의 선두 주자로 부각하자 다른 친노 대선주자들이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현재의 범여권 대선 구도가 굳어질 경우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기남 전 의장은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복룡입니다'에 출연, "총재직도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인 노노심인 게 존제할 때가 아니다. 총리를 한 분들뿐만 아니

라 우리당 만들 때 정치생명 걸고 한 사람도 있다"면서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기사를 쓰는 데 제가 나왔으니 적어도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혁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 대선후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준단다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이야기는 후보 캠프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자가발전의 징후가 생기는 것"이라

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근거리에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두관 전 장관도 전날 인터넷 매체 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범여권의 검증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이전 총리가 총리 시절 한 일이 뭐냐.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내세울 업적이 없다"면서 "이 전 총리가 검증된 후보라고 말했는데 골프 실력 하나는 확실히 검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혁규·신기남 "우리도 대선 주자"

김 "주식회사 대한민국 사장될 것"

신 "복지문화 대통령 되겠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정부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부였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계승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식을 갖고 "경제 대통령", "주식회사 대한민국 사장"이란 가치를 내걸고 선진 경제강국, 사회 대통령, 남북 경제공동체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 경제강국 실현을 위해 "시장과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개방과 경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구조 개혁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은 28일 "이번 대선에서 복지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개혁 노선으로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노선에 맞서 한판 치열한 가치 싸움을 벌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복지를 희생할 수 없다"는 거시 유혹을 국민의 편에서 거부할 대선후보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할 다음 정부는 '복지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교육·주거·직업·건강·노후불안을 보장하는 '5대 보장 국가' 비전을 제시한 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비전 2030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장은 또 교육에서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5년 내 중학교 완전주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올리고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특강에 주최측 청중동원 의혹

광주시 선관위 조사 착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특강을 한 행사에서 주최 측이 돈을 주기로 하고 청중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가 들어갔다.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노 단체 창립식에 참가한 한 대학생이 "친구 소개로 친구 10명과 함께 행사장에 왔다"며 "소개한 친구가 행사가 끝나면 3만원

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개성공단사업과 한국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러나 친구 10명과 함께 행사장에 왔다"며 "소개한 친구가 행사가 끝나면 3만원

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개성공단사업과 한국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러나 친구 10명과 함께 행사장에 왔다"며 "소개한 친구가 행사가 끝나면 3만원

체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라도 대선 주자가 참석하는 강연에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했다면 이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시 최고

아래거래 증서의 소지인은 공식최고기일인 2007. 10. 1.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광주 지방 법원 판사 박정훈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내용.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내용.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3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and 내용.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